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성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on Loneliness

-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s Mediating Role -

김광웅(Kwang Woong Kim)¹⁾

조유진(You Jin Cho)²⁾

정유진(You Jin Chung)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s mediating role between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and loneliness. The subjects were 491 5th and 6th grade school children in Seoul and Kyönggi.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was positively related to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and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loneliness. The principal finding was that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 had mediating role between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and loneliness in boys. But negative cognitive regulation didn't have mediating role between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mother and loneliness in girls.

Key Words : 애정적 유대(affectionate relationship), 부정적 인지 조절(negative cognitive regulation), 외로움(loneliness).

I. 서 론

최근 출산을 저하, 맞벌이 증가 등의 추세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들이 점차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과 같은 부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 숙명여자대학교, 상주대학교 강사

³⁾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You Jin Chung, 48-12, Gu-ui 2 Dong, Kwanggin-gu, Seoul 143-817, Korea

E-mail : jjj529@hanmail.net

정적인 적응문제와 관련되어 있음(김현지, 2002; Morrison & Masten, 1991)을 고려해 볼 때,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현재 적응이나 미래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외로움은 깊은 고립의 상태로,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며(Fromm-Reichmann, 1959) 어린 시절 해소되지 못한 친밀감의 욕구로 인한 정서이다(Sullivan, 1953; Weiss, 1973). 위의 견해가 대두된 이후에 외로움에 대한 개념화는 접근 방향에 부합하여 종종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의 사회적 결핍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Pelplau & Perman, 1982). 첫째, 외로움이 다른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마찬가지로 대개 고통스럽고 즐겁지 못한 경험이라는 것과, 둘째,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과는 다른 주관적 경험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회 관계망 여부와 상관없이 느끼게 되는 지극히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넓은 대인 관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정서라는 것이다. 즉 고독과 외로움이 경험적으로 관련 있는 정서일 수도 있지만 고독은 혼자가 되려는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휴식을 부여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Margalit, 1994)는 점이 외로움과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사회 관계망, 즉 대인 관계의 결핍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상 외로움에 관한 공통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 관계의 부족으로 느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이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개인적 맥락에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 구조의 역기능적 산물이라는데 동의해 왔는데,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이 증가되면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Weiss, 1982).

또한 이러한 외로움은 개인 내 심리적 구조의 기능이지만 결국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내적인 심리 과정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타인들과 맺는 여러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Goldenberg, 1980). 특히 아동에게 있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기본적 발달과 관계가 시작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때 가장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데(Bowlby, 1969) 이러한 신뢰로운 애착 관계는 모-자 상호작용에서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다(Ainsworth, 1979; Ainsworth, Bell, & Stayton, 1974, Bowlby, 196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애착과 유사한 '애정적 유대(affectional relationship)'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자녀 사이의 친밀감과 공감의 정도이며, 신뢰하는 특정 인물에 대하여 접근하고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의 여부를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haver와 Rubenstein (1980)은 부모-자녀 관계가 빈약할 때 아동과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김현지(2002)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은 아동들은 애정적 유대가 낮은 아동들에 비해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정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

로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도현심(1996)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온정성이,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온정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여 아동의 외로움에 있어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취약할수록 외로움에 많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확인시켜주지만, 반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감이 취약한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정도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감이 부족한 경우라도 어떤 아동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의 외로움에 대하여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어머니와의 유대감과 아동의 외로움이라는 관계에서 개별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제 3의 요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다.

예를 들어, Peplau(1982)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평가할 때 자신의 비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주는 인지 요법이 외로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Teasdale(1997a, 1997b)은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한 발 밖에서 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러한 정서 조절 능력의 획득이 우울증 재발 방지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경희(2004)

는 아동의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상위인지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 : 사고에 대한 신념)과 상위인지 조절(metacognitive regulation)을 개선시킴으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아동이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전환하거나, 문제를 중심으로 감정을 재평가 하는 등의 인지 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외로움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연구, 특히 부정적 인지의 조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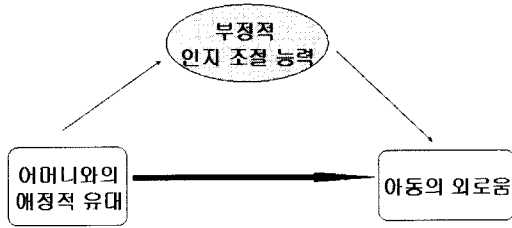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긍정적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고, 또한 아동의 외로움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오재순, 1998; 오현미, 2000; Cramer & Neyedley, 1998)를 근거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남·여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1-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아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1-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아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4개의 초등학교에서, 5~6학년 아동 5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을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매개 변인으로 선정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8세 경에 출현하여 아동 중기로 가면서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정숙경, 1988; 한임선, 1992; 임경희, 2004; Deshler & Schumaker, 1986; Zimmerman, 1990)을 토대로, 다른 변인들과 함께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사려 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총 520부를 배부하여 513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아동, 무응답과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9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검사지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를 옥정(1998)이 수정한 개정본(IPPA-R)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며, 개정본(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유대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유대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25문항이다. 척도는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고,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은 역 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유대감이 안정됨을 가리킨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경희(2003)가 우리나라의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상위 인지 조절 전략 척도 중 부정적 인지 조절 전략 문항만을 선택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대한 사고 전환과 문제 중심 재평가와 관련된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4점 평정 척도이다. 부정적 인지 조절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외로움

아동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오현미(2000)가 제작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마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외로움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외로움과 관련된 것은 20문항이다. 그리고 나머지 4문항은 아동의 취미와 관련된 것으로서 검사 참여의 동기 유발을 위해 포함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큰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사전 조사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문항 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 소요 시간, 응답 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대상의 연령집단과 유사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신뢰도 및 문항 내용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질문지 완성에는 15~2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검증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기간은 약 일주일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학급의 교사가, 아동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외로움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는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과의 관계에서 남/여아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9, p<.001$ / $r=.18, p<.01$), 외로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8, p<.001$ / $r=-.32, p<.01$). 또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은 외로움과의 관계에서 남/여아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0, p<.001$ / $r=.13, p<.05$).

<표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외로움의 관계

		남($n=247$), 여($n=244$)		
성별		1	2	3
남아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39****		-.38****
	2.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	-	-.30****
	3. 외로움	-	-	-
여아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18**		-.32****
	2.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	-	-.13*
	3. 외로움	-	-	-

* $p<.05$ ** $p<.01$ *** $p<.001$

상관분석 결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요인을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요인과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남아, 여아 각각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아의 부정적 인지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남아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인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인지 조절능력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9, p<.00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38, p<.001$)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18, p<.0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31, p<.001$). 그러므로 부정적 인지조절 능력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아의 부정적 인지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여아의 경우,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표 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아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 검증

단 계		β	R^2
1 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39***	.15
2 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외로움	-.38***	.14
3 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외로움 2)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 외로움	-.31*** -.18**	.17

** $p<.01$ *** $p<.001$

<표 3>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아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 검증

단 계		β	R^2
1 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18**	.03
2 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외로움	-.32***	.10
3 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 → 외로움	-.31***	.11
	2)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 외로움	-.08	

** $p < .01$ *** $p < .001$

이, 독립변인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에서 매개변인인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8, p < .01$),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도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32, p < .001$). 그러나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요약하면,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를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에게 있어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아의 경우에 부정적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이나 재미있는 게임 등을 통해 부정적 사고를 전환 시키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생각에 집중하여 옳은지 따져보고, 그러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부정적 사고의 결과를 헤아려 보는 것과 같은 문제 중심으로 상황을 재평가 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의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상위인지 지식과 조절을 개선시킴으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임경희, 2004)와 맥을 같이 하며, 걱정 전략과 그 밖의 다른 자기 초점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정서적 취약성 또는 정서장애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Amir, Cahman & Foa, 1997; Reynolds & Wells, 1999; Matthews, Hillyard & Campbell, 1999)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를 통하여 남아는, 외로움을 유발시키는 동

일한 상황일 경우, 부정적 인지를 조절하는 전략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며, 따라서 부정적 인지 조절 전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즉,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에게 부정적 인지 조절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아동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유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외로움과 그로 인한 역기능적 정서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인지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치료적 접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Teasdale(1999)이 외로움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우울에 대해 우울한 사고와 감정에서 탈중심화 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우울증 환자 집단의 부정적 인지 자각이나 조절 수준이 정상 집단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둘째, 여아에게 있어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Marcoen & Brumagne, 1985; 도현심, 1998; 오현미, 2000)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외로움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고,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다소 미비하여 매개효과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려 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이지선 · 유안진, 1999; 한유진, 2004, Tinnors, Fischer, Manstead, 1998)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여아는 부정적 사고를 전환하거나,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평가 하는 등의 인지적 조절전략을 사용하는 남아들과는 달리 관계 지향적인 동기의 작용으로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부정적 인지 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문화 환경,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 된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부재하는 아동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재/부재 여부와 함께 이혼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인지 조절 능력 외에 아동의 외로움을 매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제나 또래관

계, 아버지 등으로 확장 시키거나, 다른 개인 내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속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심리 치료적 개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밝혔으나, 외로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으로 아동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아의 외로움에 대하여는 영향력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그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현지(2002).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 · 박선영(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오재순(1988). 청년기의 고독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미(2000).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옥 정(1998).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임경희(2003). 정서문제 판결 상위인지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247-269.
- 임경희(2004). 아동의 특질불안, 우울, 걱정증상과 상위인지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5(3), 41-57.
- 정숙경(1988). 초인지 획득방법의 훈련이 학습전략 행동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임선(1992). 아동의 상위인지 방략 사용 능력의 발달적 양상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In Rosenblatt, J, Hinde, R, Beer, C. & Bushel, M.(Eds.), *Advances in the stud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9, 1-51. New York : Academic Press.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4). Infant-mother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 socialization as a protect of reciprocal responsiveness to signals. M. P. M. In Richards (Ed), *The intergration of child into a social world*, 99-13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ir, N., Cashman, L., & Foa, E. B.(1997). Strategies of thought control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775-777.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1969).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 Basic Books.
- Cramer, K. M, & Neyedley, K. A.(1998). Sex difference in loneliness : The role of masculinity and feminity. *Sex Roles*. 「online」, 38, 645-653. 「Cited 1999.11.13」 <http://global.umi.com>. ISSN 03600025.
- Deshler, D. D., & Schunaker, J. B.(1986). Learning strategies : An instructional alternative for low achieving adolescents. *Exceptional Children*, 52(6), 583-590.
- Fromm-Reichmann, F.(1959). Loneliness. *Psychiatry*, 22, 1-15.
- Goldenberg, I., & Goldenberg, H.(1980). *Family therapy. 가족치료*. 김혁표 · 제석봉 · 김정택 공역(1988).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Margalit, M.(1994). *Loneliness amo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Theory, research, coping, and interven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Matthews, G., Hillyard, E, J., & Campbell, S. E. (1999). Metacognition and maladaptive-coping as components of test anxie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11-126(Special Issue, Metacognition Cognition Behaviour Therapy).
- Morrison, A., & Masten. K. A.(1991). Health consequence of loneliness in adolescen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6, 23-31.
- Peplau, L. A. & Perlman, D.(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8, New York : Wiley.
- Peplau, L. A., Bikson, T. A., Rock, K. S., & Goodchilds, J. D.(1982). Being old and living alone.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8, New York : Wiley.
- Reynolds, M., & Wells, A.(1999). the thought control questionnaire -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and relationships with PTSD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9, 1089-1099.
- Rubenstein, C. M., & Shaver, P.(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Per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206-223, New York : Wiley-Interscience.
- Shaver, P. & Rubenstein, C.(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42-73,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Teasdale, J. D.(1999). Metacognition, mindfulness and the modification of mood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46-156(Special Issue, Metacognition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 Teasdale, J. D.(1997a). Assessing cognitive mediation of relapse prevention in recurrent mood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4, 145-156.
- Teasdale, J. D.(1997b).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and emotion : The mind-in-place in mood disorders. In D. M. Clark, & C. G. Fairburn (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ur therapy*, 67-93,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immers. M., Fisher. A. H., & Manstead. A. S.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74-986.
- Weiss, R. S.(1973). *Loneliness :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Weiss, R. S.(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man(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71-80, New York : Wiley-Interscience.

Zimmerman, B. J.(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 51-59.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9월 1일 채택